

# WTO DDA 협상의 현황과 의의

신 길 수\*

## I. 위기에 빠진 DDA 협상

금년 봄 부활절을 이틀 앞둔 4월21일 개최된 WTO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파스칼 라미(Pascal Lamy) WTO 사무총장은 DDA 협상에 있어 WTO 회원국들 간에 메울 수 없는 근본적인 입장차가 있으며 금년 내 타결 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고백했다. 이날은 WTO 회원국들이 야심차게 준비중이던 협상 분야별 수정텍스트 배포가 무산되고 대신 협상의 현주소만을 반영한 의장 보고서가 제출된 날이었다. 부활을 고대하던 회원국들의 희망과는 달리, 「Financial Times」(4.22), 「Economist」(4.30)는 “Life after Doha”, “Deadman talking”이라는 통렬한 제하로 DDA 협상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하였다.

출범 10년째로 진입한 DDA호(號)는 WTO 건물을 유유히 감싸고 있는 제네바 레만 호수의 심연으로 침몰될 위기에 놓여있다. 지난 수년간 누구나 알고 있었으나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우려

가 현실화되면서 DDA 협상뿐만 아니라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심각한 신뢰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자유무역의 위기는 무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외 환경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DDA 협상 출범의 걱정을 직접 경험한 필자는 현재 DDA 협상을 전담하는 대사로서 지난 10년간의 협상 경과, 교착 원인과 가능한 대안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 II. DDA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도하에서 서울까지

### 1. DDA 협상의 태동

DDA 협상은 WTO가 낳은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

\* 외교통상부 DDA 협상 담당 대사

회의에서 정식 출범하였다. DDA 협상은 제3차 WTO 각료회의(1999년, 시애틀)의 이른바 ‘뉴 라운드(New Round)’ 출범의 실패를 딛고, 다양한 의제를 포괄하는 새로운 다자통상협상을 출범시키기 위한 미국과 EU의 각고의 노력 속에서 탄생했다. 그러나, 출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은 협상의 목표가 무역자유화의 확대와 함께 개도국의 개발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함에 따라 기존의 ‘Round’라는 명칭대신에 ‘Development’가 들어간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출범하게 된다.

## 2. DDA 협상의 경과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DDA 협상 전체를 중간점검하고, 합의시한이 이미 지난 농업·비농산물 분야의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ies)<sup>1)</sup>에 대한 기본골격(Framework)<sup>2)</sup> 합의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농업, 비농산물, 싱가포르 이슈<sup>3)</sup> 등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결국 DDA 논의를 계속한다는 짝막한 각료성명서만을 채택하고 종료되고 만다.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은 주요국들 간에 격렬한 비난 전가(blame game)를 야기하였고, 현지에서 시위중이던 우리 농민이 자결하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남기게 되었다.

2004년 1월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협상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회원국들을 독려했고,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6월 오시마 쇼타로(Oshima Shotaro) 일반

이사회 의장은 DDA 협상의 기본골격에 포함될 분야와 기본방향을 포함한 9개항으로 구성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제시하게 된다. 7월 패키지 합의 이후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규범 등 각 협상분야에서 세부원칙 작성을 위한 기술적인 논의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2005년 12월 홍콩에서 제6차 WTO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당초 기대했던 세부원칙 합의는 달성하지 못했으나,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개발 등 주요 협상분야별 협상 지침 및 방향을 포함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홍콩 각료회의 지침에 따라 농업 및 비농산물 협상의 세부원칙 작성을 위해 2006년 초부터 집중적인 협상을 전개하였으나, 핵심 이슈<sup>4)</sup>에서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는 극복되지 못하였다. 2006년 7월 미국, EU, 인도, 브라질, 일본, 호주 등 주요국들의 각료회동이 실패로 끝남에 따라, 결국 7월24일 Lamy WTO 사무총장은 급기야 DDA 협상 전체를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을 선언하게 된다. 협상의 중단은 DDA 협상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으로서 WTO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자성과 숙고를 거쳐 2007년 2월 전체 협상은 재개되고, 농업 및 비농산물 의장 주도로 자유화 세부원칙 텍스트 작성을 위한 밀도있는 협상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2008년 7월 개최된 제네바 소규모 각료회의는 농업 및 비농산물에서 완성도 높은 수정 텍스트가 제출되어 가장 합의에 근접했다는 평가속에 큰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농업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G) 발동수준과 같은 예상치

못했던 이슈에서 선·개도국 간 입장 대립을 극복치 못해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하게 되었다. 그 여파로 2009년 12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차 WTO 각료회의도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DDA협상을 2010년 내 타결하자는 목표만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만다.

협상의 교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2010년 11월 예정된 G20 서울 정상회의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Lamy 사무총장은 9월 초 방한하여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DDA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기 위한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의장국의 자격으로 정상선언문 협의과정을 주도하고 일부국가들을 설득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수준높은 메시지 작성에 성공하였다. 즉, 2011년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을 활용하여 막바지 협상을 적극 전개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 걸쳐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함으로써 2011년 내 협상 타결을 위한 모멘텀을 형성한 것이다.

이에 힘입어 Lamy 사무총장은 2011년 협상 타결을 위한 세부 목표<sup>5)</sup>를 제시하고 집중적이고 밀도있는 다자 협상을 독려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비농산물의 분야별 자유화(Sectoral Approach)<sup>6)</sup> 참여를 요구하는 미국과 이를 거부하며 자발적 참여 원칙을 강조하는 중국 등 신흥 개도국들 간의 입장차는 끝내 좁혀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4월 말 수정텍스트 제출에 실패하면서 협상은 다시 공전상태에 처하게 된다.

### Ⅲ. DDA 협상 교착의 원인

DDA 협상은 지난 10년간 3차례의 공식 각료회의, 6차례의 협상시한 도과, 1차례의 협상 중단 등을 겪으며 교착과 재개를 거듭해 왔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도 8년간의 공전끝에 극적으로 타결되었는데, 유독 DDA 협상이 이렇게 장기간 교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Susan Schwab 전 미국 무역협상대표(URTR)는 금년 6월 「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DDA 협상의 실패는 시대에 뒤떨어진 구조와 협상 역학(“outdated structure and negotiating dynamic”)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첫째, DDA 협상의 교착 원인은 미국과 신흥 개도국(중국, 인도, 브라질) 간의 갈등 구도에서 기인한다. 미국은 신흥 개도국에 대해 비농산물, 서비스 등에서 2008년 잠정타협안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추가적인 시장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DDA 협상의 쟁점이 농산물에서 비농산물로 이동하면서, 미국은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신흥 개도국들이 비농산물의 화학, 전기·전자, 산업용 기계, 의료기기 등의 분야별 자유화에 참여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UR 당시와는 달리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진 신흥 개도국들이 이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최근 미국 행정부의 수출드라이브와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수준낮은 패키지로는 미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에 비해 개도국 진영은 2002년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선진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가입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받았던 중국은 미국의 추가 시장개방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고, 인도, 브라질을 위시한 개도국들도 DDA가 기본적으로 ‘개발’ 라운드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즉, 미국이 자국 관심분야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협상 목표수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미국도 농업 국내보조 감축, 서비스 인력이동 등에서 상응하는 댓가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WTO 거버넌스 및 협상 원칙도 협상 타결을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컨센서스(consensus)<sup>7)</sup>로 대표되는 WTO의 의사결정방식은 이미 회원국의 2/3을 차지하는 개도국들의 수에 비추어 전반적인 자유화 라운드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다자간 무역자유화 라운드에서는 선진국들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합의된 사항들을 전체 회원국들에게 다자화시키는 방식이었으나, 현재의 협상 구도는 개도국들의 동의없이 어떠한 합의도 도출할 수 없는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WTO의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sup>8)</sup>에서는 핵심 쟁점인 시장접근이슈에서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타결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즉,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등 시장접근 분야에서의 합의 지연이 여타 분야의 합의 지연을 낳게 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셋째, 양자·지역간 특혜무역협정<sup>9)</sup>을 통해 수준높고 간편하게 무역자유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도 DDA 협상 타결을 지체시키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몽골을 제외한 모든 WTO 회원국들이 특혜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WTO에 통보된 489개의 특혜무역협정(297개 발효, 2011.5월 기준)중 70% 이상이 WTO 출범 이후에 통보되는 등 세계적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특혜무역협정은 WTO의 근간인 최혜국 대우(MFN)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sup>10)</sup>된다는 점에서 WTO 체제와 충돌되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거대 교역국간에 양자적인 FTA를 추진할 경우 DDA 협상을 통한 시장개방 실익이 적어지기 때문에, 협상 타결에 대한 당위성도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IV. 새로운 대안은 있는가?

### 1. Plan B 모색

연내 DDA 협상 타결이 무산된 4월 이후 WTO 회원국들은 향후 협상의 진로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어떤 회원국도 협상을 그만두자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 유지하던 협상 방식(Plan A)은 바꾸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6월 APEC 및 OECD 계기 각료회의를 거쳐 나온 아이디어가 소위 ‘소규모 패키지(Small Package)’ 합의 방안<sup>11)</sup>이다.

그러나, 일괄 타결보다 훨씬 수월해 보이던 소규모 패키지에서도 회원국들의 입장 대립은 여전하였다. 즉, 논란이 적

은 최빈개도국 이슈만 패키지에 담아야 한다는 개도국들과, 여타 의제도 포함하여 이익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선진국들의 입장이 다시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Lamy 사무총장이 관련국들을 중재하여 타협을 시도했으나 무위로 돌아감에 따라, 결국 7·26 무역협상위원회에서 소규모 패키지 계획의 사실상 포기를 선언하게 된다. 소규모 패키지의 실패는 DDA 협상의 실패가 의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제 남아있는 다른 대안<sup>12)</sup>은 무엇일까? 협상 중단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안(stop and reboot), 현 협상상태를 살려나가는 방안(salvage and reboot), 협상동결 방안(freeze) 등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어느 하나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다만, 상처입은 WTO의 신뢰 제고를 위해 무역자유화 라운드 기능 외에 분쟁해결, 모니터링, 가입 등 규범영역(regulatory system)에 속하는 일반 기능을 강화해 나가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인 다자간 무역자유화 방식을 지양하고 자유화 의지가 있는 일부 국가만 참여하는 복수국간 협정[예: 정보기술협정(ITA), 정부조달협정(GPA)]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회자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은 의문시되고 있다. 이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를 고안해 내기가 쉽지 않고, 비중이 큰 국가가 불참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최혜국 대우를 근간으로 하는 WTO의 본질상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2. 제8차 WTO 각료회의와 그 이후

금년 12월 제네바에서 개최될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WTO의 일반적 기능 강화와 시스템 문제가 의제로 논의되는 가운데<sup>13)</sup>, DDA 협상에 관해서는 제8차 각료회의 이후의 협상일정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고 있다. 제네바 프로세스와는 별도로 11월 프랑스 칸느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서는 WTO 거버넌스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범세계적 어젠다를 해결하는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서 G20가 그동안 WTO 이슈에 대해 중요한 정치적 동력을 제공해 온 만큼, 금년도 정상회의에서 어떤 묘약을 처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2012년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정치 일정<sup>14)</sup>이 예정되어 있어 협상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관측이다. 이 경우 각국의 신정부들이 들어서면 2013년 이후에야 DDA 협상에 대한 관심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이제 DDA 협상은 2012년이라는 공백을 무사히 넘겨야 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부터 협상이 재가동될 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 V. 결어 : DDA 협상의 중요성

2001년 DDA 협상이 출범한 이후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세계의 경제 지

형은 엄청나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중국, 브라질, 인도 등 거대 신흥개도국의 부상이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세계 경제 구조와 질서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세계경제는 새로운 질서로 이전하는 과도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각국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표출되면서 DDA 협상, 기후변화 등 지구적인 통상아젠다에서 공동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과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원칙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세계적 경제위기를 겪은 각국이 무역자유화를 위한 국제 협력보다는 국내 정치사정에 더 민감하게 되어 국제 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점에도 기인한다.


특히, DDA 협상이 10년간의 줄다리기에 머물러 온 근본적 이유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와 같이 극심한 신뢰 부족으로 인해 '협조'가 가져올 상호 이익을 저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다자통상협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무역 자유화를 확산시키고, 국제무역 규범체제를 잘 준수하는 것은 비록 국가간 상대적 이득의 격차는 있을 지라도 모든 회원국이 양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DDA 협상을 통한 다자통상체제 확립은 범세계적 시장개방 확대뿐만 아니라, 통일된 무역규범을 강화하여 보다 자유롭고 예측가능한 무역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무역을 통한 부의 창출에 근본적으로 기여한다.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 결과<sup>15)</sup>에 따르면 DDA 협상 타결시의 경제적

효과는 2,000~5,000억 불로 추산된다. 이외에 현 수준보다 관세를 높이지 않도록 하는 보험효과, 무역왜곡 감소효과 등 무형의 혜택은 정량화된 가치로 추산할 수 없다.

특히, 대외무역의존도가 85%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다자통상협상의 최대 수혜국중 하나로서 DDA 협상의 타결이 더없이 필요하다. 현재 거대경제권을 중심으로 글로벌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범세계적 무역자유화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WTO를 보완하는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 FTA를 통한 지역적인 자유화 역시 중요하지만, 다자적인 무역 자유화가 근본적으로 효과가 크며 자원 및 소득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6)</sup>

이제 DDA 협상은 타결이 아니라 미래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 세월의 각고의 노력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묻어버리고 새로운 라운드를 개시할지, 아니면 DDA 협상을 가사상태에서 구출할 수 있는 분명한 로드맵에 합의할지는 여전히 153개 WTO 회원국들의 손에 달려 있다.

만약 후자를 가능케 하려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자세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WTO 회원국들의 신뢰 회복, 주요국들의 리더십 발휘, DDA 협상이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는 효율적인 WTO 시스템 정비 등이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 올 겨울 제네바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위기의 DDA호를 구제할 수 있는 의미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註

- 1) 관세와 보조금을 어떻게 낮추고 자유화에 관한 규범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다자적 약속
- 2) DDA 출범 당시 농업협상의 중간단계 목표였던 세부 원칙(modalities) 합의가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자 칸쿤 각료회의에서는 완전한 수준의 세부 원칙이 아닌 기본원칙 수준의 합의 달성을 추구. 이를 기본골격(framework)으로 지칭하며 구체적인 수량적 목표가 결여된 점에서 세부원칙과 구분
- 3)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자, 경쟁을 지칭하며, 제2차 WTO 각료회의(1996년, 싱가포르)에서는 동 주제들이 무역과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에 대해 분석작업을 진행키로 결정. 도하 선언문은 제5차 각료회의에서 4개 싱가포르 이슈협상 개시를 위한 세부원칙(modalities)을 채택하도록 규정했는데, 제5차 칸쿤 각료회의에서는 싱가포르 이슈가 논의되던 그린룸회의에서 협상이 결렬되어 동 이슈가 결렬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
- 4) 농업 시장접근 개선(관세감축), 농업 국내보조 감축, 비농산물 시장접근 등 소위 3각 이슈(triangle issue)
- 5) 4월 협상 분야별 수정텍스트 작성, 7월 모델리티 타결, 하반기 각 국 양허표 작성 및 검증 順
- 6) 모든 비농산물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감축공식 외에 특정 분야에 대해 관세를 철폐(또는 조화)하는 방식. 참여국들이 세계교역 비중의 일정비율(예 : 90%) 충족시 MFN 방식으로 발표
- 7) WTO 의사결정방식으로 153개 회원국 중 단 1개국의 명시적인 반대가 있어도 합의 도출이 불가능함. WTO 설립협정상 투표에 의한 결정방식도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투표를 실시한 예는 거의 없음(예외 : 1995년 에콰도르의 WTO 가입시 2/3 찬성)
- 8) 일괄타결의 원칙(Single Undertaking)이란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없다 (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로 설명되며, 합의된 협상 패키지(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서비스, 규범, 지적재산권, 무역원활화, 환경, 개발)중 일부만을 취사선택할 수 없고 전체를 수용해야 함.
- 9)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는 FTA, 관세 동맹, 공동시장 등을 총칭하며 이 중 FTA가 3/4를 차지
- 10) GATT 24조는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역무역협정을 설치하는 것을 예외로 허용. 즉, 역내의 관세나 다른 무역장벽이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부분에 있어 완화 또는 제거되어야 하며, 역외국가에게는 이전에 비해 역내국가와의 교역이 더 제한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
- 11) 연말까지 합의가능한 이슈만 담은 소규모 패키지를 만들어 12월 제8차 각료회의시 조기 수확하는 방안
- 12) 소규모 패키지의 실패를 일찍이 예견한 Schwab 前 USTR은 ITA(정보기술협정)의 품목범위 확대, 투자·투명성·전자상거래·서비스·지재권 등 기존 양자·복수간 협정 내용의 다자화(multilateralization), 분쟁해결절차의 강화 등을 예시 (2011.5/6 Foreign Affairs)
- 13) 2011.7.27 Agah 일반이사회에서 의장은 금년 하반기 제8차 각료회의 미확정 의제로 개발(무역을 위한 원조, 최빈개도국 이슈 포함), 가입절차 개선, 무역정책검토(TPRM) 및 보호주의 모니터링 강화, 지역무역협정(RTA) 투명성 강화 등 작업에 주력하고, 제8차 각료회의 이후 작업으로 WTO 시스템 이슈와 21세기 이슈(무역과 환율, 기후변화, 식량안보)를 구상
- 14) 2012년 주요국 정치 일정 : 러시아 대선(3월), 한국 총선 및 대선(4월, 12월), 프랑스 대선(4월), 인도 대선(7월), 멕시코 대선(7월), 중국 국가주석 교체(10월), 미국 대선(11월)
- 15) WTO 연구에 따르면, 현 DDA 협상안의 가치는 관세 추산시 1,500-5,000억불 수준. PIIE(2010.3)에서는 NAMA 분야별 자유화, 서비스, 무역원활화 추가 개천시 전세계 수출 2,804억불, GDP 2,827억불 상승 효과 발표. KIEP 연구 결과(2008)는 NAMA 분야별 자유화 및 서비스 자유화시 전세계 수출 2,853억불, GDP 1,355억불 상승하며, 우리나라는 수출 219억불(7.13% 증가), GDP 145억불(2.04% 증가) 예상
- 16) 현재 발효중인 5개 FTA(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와 발효 예정인 한·미 FTA까지 더해도 우리나라 전체 무역에서 FTA가 차지하는 비중이 37.2%에 불과